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1월

# 부터 소비세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Refund

TAX FREE



2026년 10월까지

2026년 11월

구매 시	면세로 구매 (또는 카운터에서 환급)	소비세 포함으로 구매 (신용 카드 등 환급 정보 등록)
출국 시	보안 검색 후 세관에서 확인 (제한 구역)	보안 검색 전 세관에서 확인 (일반 구역)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환급	_____	세관 확인 후 환급

## 개정 후 수속 흐름



# 리펀드 방식에 관한 Q&A

## 구매 시



Q.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A. 구매 수량은 출국 시 해당 상품을 모두 직접 소지하고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구매한 상품은 세관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리펀드 방식은 과자나 화장품의 특수 포장이 불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소비해도 되는 건가요?

A. 소모품의 특수 포장은 폐지되지만, 음료수나 화장품 등을 일본 국내에서 소비할 경우 세관 확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2년 이상 국외에 살고 있습니다. 면세 수속 시 제시하는 확인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A. 일본 국외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현행 서류 외에 마이넘버 카드도 허용됩니다.



Q. 환급 수속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A. 소비세분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면세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구매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시



Q. 세관에서의 확인 수속은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A. 수하물 위탁 전까지 세관에서의 확인 수속을 완료해야 하므로 **일찍 공항(또는 해항)에 도착하여 면세 수속용 단말기 등으로 수속을 진행해 주십시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출국 시에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 공항에서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면세 수속을 한 상품 중 일부를 소비해 버렸습니다. 소비하지 않은 상품만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관 확인은 1회 구매 수속(영수증 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회 구매 수속(영수증 등) 단위에 포함된 상품 중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에 대해**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 SHOP △△점	
2026년 12월 5일 AM 10:40	
품명 A × 1	3,000 <del>→소지</del> ○
품명 B × 1	75,000 <del>→소지</del> ○
품명 C × 1	13,000 <del>→미소지</del> ×
합계	91,000
<b>모두 면세 불가</b>	

영수증	
○○ SHOP △△점	
2026년 12월 5일 AM 10:40	
품명 A × 1	3,000 <del>→소지</del> ○
품명 B × 1	75,000 <del>→소지</del> ○
품명 C × 1	13,000 <del>→소지</del> ○
합계	91,000



Q. 단가가 100만 엔 이상인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세관 확인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소비세를 제외한 단가가 100만 엔 이상인 상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해당 상품과 함께 **감정서나 보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원활하게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관 확인을 받은 상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A. 면제된 소비세액에 상당하는 소비세가 징수되며 **벌칙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리펀드 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리플렛 및 Q&A)은 관광청이나 국제청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청 소비세 면세점 웹사이트



국제청 웹사이트

